

# '황토 달마' 무료로 드립니다

## 부산 김취철씨 3천3백여구 빚어 보급 "수행정신 본받아 역경극복 기운얻길"

"달마스님은 9년 면벽을 통해 깨우친 분으로 높은 수행력과 신통력으로 추앙 받는 지혜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황토 달마 상을 통해 달마스님의 내면을 향한 수행력과 지혜의 가르침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취철씨는 3천 3백 구를 15개월 동안 조성해 무상으로 보급에 나선 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문화개발연구원 '옥수봉'의 김취철(48) 원장이 그 주인공.

김원장은 7년전부터 황토달마 제작 기법 연구를 시작하면서 황토달마 3백3십만구 조성을 발원하고 일차로 3천3백 달마 조성을 마무리 했다. "삼천대천세계에 달마의 빛, 광명, 위력이 두루 비치게 하고 싶다"는 김원장은 3천3백 달마 완성이 금생을 다쳐야 할 원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황토 달마 조성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산방토굴 작업실에 들어가 황토 달마가 완성되지 않으면 작업실을 나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불사였다. 지장왕토를 구하고 말리고 가마에 부고 맷돌로 갈고 풍

효능이 입증되고 있기도 하다. 황토와 씨름하며 이 땅에서 함께 숨쉬며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일체감을 맛보았다는 김원장은 달마에 사갓을 씌워 친근한 달마를 조성했다.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느껴오던 달마를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내면의 스승으로 자신의 정진을 재촉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원장은 3천 3백 달마 조성을 회향하면서 황토 달마 무상보급을 발원했다. 조성이 그러했듯 보급 또한 정성을 다할 생각이다. 사갓 속에 세속을 초월한 형형한 눈빛을 감추고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21cm, 25cm 크기의 황토 달마는 무상으로 보급된다. 제작비를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김원장은 "맑은 마음으로 하는 일은 옹색하지 않고 반드시 성사된다"고 일축한다. 오히려 달마를 조성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혼과 정성을 다해 조성한 달마를 정말 소중히 모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운을 얻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김원장은 "조성할 때의 정성 그대로 한번 한번의 가슴에 직접 안겨 주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jdhpia.com)



김취철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달마상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다. 황토달마는 신심깊은 불자들에게 '무주상보시'로 전달된다.

### 종단소식

#### 조계종

##### 청동미륵대불 개금불사

제5교구 본사 법주사(주지 지명)는 7일 통일호국 청동미륵대불 개금불사를 착공했다. 제1단계로 연말까지 부처님 거드랑이까지 개금을 완료하는 등 내년말까지 총 4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개금불사는 금박지 20~30매 두께의 순금 3미크론씩을 전기도금해, 준공후 50년이상 광택을 유지하고 균열 및 비틀림현상을 방지하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 충북불교신도회 창립

조계종 충북불교신도회가 창립됐다. 충북지역의 법주사와 교구 70개 말사 신도회, 20개 신명단체들로 구성된 충북불교신도회는 지난달 28일 불교방송 10층 문화센터에서 창립기념법회를 갖고 초대회장에 김경길씨(사진)를 추대했다. 초대회장 김경길씨는 충청북도 교육위원, 청주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산악인불자연합회 부총재, 5교구본사 법주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자주사상과 승속통행의 화합정신을 지향하는 엠블렘(사진)을 확정 발표했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 엠블렘은 한글 '회당'과 '100'을 조합한 것으로 회당대종사가 주창한 이원자주사상과 미래지향적인 승속 화합정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원자주사상의 이원은 '100'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열린 원으로 나타내고, 자주는 '100'을 구성하고 있는 1로 표현했다.

#### 법륜종

##### 사미(니) 29명 수계



5일 목포 보현정사 금강계단에서 제1회 사미(니)계 수계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중정 정각스님이 전제사리, 해봉스님이 교수사리로 봉행된 이번 수계법회에서는 사미 19명 사미니 10명 등 총 29명이 사미(니)계를 받고 수행의 삼을 살 것을 부처님전에 서원했다.

#### 조동종

##### 영월 명수사 미륵불 점안

영월 명수사(주지 해광)는 19일 오전 10시 미륵부처님 점안식 및 관음불사 회향대법회를 갖는다. 이번 대법회는 지명 중정스님과 학봉 총무원장스님, 서운 서곡정사 조실스님의 중명하에 봉행된다. (033)372-5485

#### 천태종

##### 삼양사 종합회관 낙성식

밀양 삼양사(주지 월장)는 23일 오전 11시 종합회관 낙성식 및 관음발상 점안식을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중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055)354-3267

#### 진각종

##### 회당 100돌 엠블렘 확정

진각성종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봉행위원회(이하 기념사업회)는 6일 이원

## 삼화사 재정신청 기각

### 중앙환경조정위 "건물균열 노후화 탓"

동해 삼화사가 쌍용자원개발(주)을 상대로 제기한 채석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조정신청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하 재정위원회(위원장 안영재)는 지난달 31일 삼화사가 8억6,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신청한 재정사건에 대하여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삼화사의 건물 피해가 쌍용측의 화약발과 진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목재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갈라짐으로 보이며 건물의 노후화 및 관리부실의 영향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한편 쌍용자원개발의 석회석 발과 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건물 균열 피해 등이 발생했다며 지난 3월 8억6,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낸 삼화사는 발파시험 결과를 참조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이의신청을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 관음사 천불보전 낙성

청주 관음사(주지 이두)는 5일 천불보전 낙성식 및 점안법회를 봉

행했다. 83년 현 주지 이두스님이 부임하면서 중창을 거듭, 임시 법당과 퇴락한 요사를 거둬 40평 목조건물인 극락보전을 건립하고, 10년만에 전통양식으로 콘크리트 3층 천불보전을 완공했다.

낙성식에 앞서 하루전인 4일 저녁에는 관음사합창단, 풍물패와 씨알누리, 실내악단 신모듬 등이 출연한 가운데 '산사 음악회'를 열어 시민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관음사는 천불보전 낙성을 계기로 불자들에게는 수행과 기도의 공간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쉼터의 자리가 되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 강릉 법왕사 대응전 준공

강릉 법왕사(주지 정암)는 5일 아미타불, 노사나불, 약사여래불 등 7불보안 및 대응전 준공식을 거행(사진)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호계원장 원서스님, 삼화사 주지 원행스님, 심기섭 강릉시장, 황화수 의원 등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전유진 강릉지사장

## 존자암 세존사리탑 도문화재 지정

제주서 다공질 현무암으로 조성된 제주도 유일의 장구형 사리탑인 존자암지 세존사리탑(사진)이 1일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제주도기념물로 43호로 지정된 존자암지 정비와 더불어 존자암지 세존

사리탑을 제주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보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존자암(중창주 진아스님)은 세존사리탑 문화재지정을 기념해 15일 오전 10시 한라산 영실 존자보궁 부처님집안 대법회를 봉행한다. (064)749-1414 김재경 기자



심소회 회원들이 정성을 더해 바자 소품을 만들고 있다.

## "자비로 굶는아이 도움시다"

### 부산삼소회 24~25일 바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3대 종교의 여성 성직자들의 모임인 부산삼소회가 24~25일 부산진구청 1층 전시실에서 삼소바자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에 한창이다.

종교간 울을 더 한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삼소회는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으로 결식아동 돕기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9일 2차 준비 모임을 가진 삼소회 대표들은 바자회에 출품할 소품 준비 작업을 분담했다. 불교는 다포, 차상보 2쪽병풍을, 천주교는 종교 구별 없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연하카드 양초공예품을, 원불교는 한지공예품 생활도자기 차도구

등 생활용품을 맡아 출품한다.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성 성직자들이 손수 만든 한지 소재 정반, 찻상, 보자기, 시장 바구니, 연하카드가 보는 이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로부터 조용히 행사를 준비해 온 삼소회 회원들의 꼼꼼하고 정성 어린 손길로 마련한 바자회 소품들은 지난 여로부터 바구니, 정반, 수녀님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직접 오려 붙이는 등 정성을 다한 수작품이다. 김정덕 교무는 "한가족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 어려운 이들을 위한 봉사를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051)817-8488 부산=천미희 기자

# 스님! 내년에 지으실 장엄불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완벽한 시공은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천년대계의 문화유산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 사찰 건축

- 서가례양생
- 내포양생
- 외포양생
- 외삼포 조립과정

### 현대불교건축의 새로운 역사! 한국불교건축공예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 특징

-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 조립공정으로 간편하여 시공이 빠릅니다.
-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 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 화재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 사업안배

- 콘크리트 범당
  - 요사채
  - 콘크리트 성형조각 판매
- 스님의 주문평수에 따라 서가례에서 포작까지 일체 제작판매

#### 시공사찰

- 정법사
- 삼각사
- 용주사
- 만불사
- 해광사
- 쌍용사
- 지장사
- 반야암
- 전통사
- 원리사
- 영탈사
- 등

## 한국불교건축공예

본사/서울 중랑구 망우3동 518-34(호성빌딩) 대표전화 (02) 494-4890/1 제1공장/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원장1리 · 제2공장/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237